

작품 내용

제 목	시화전, 내 이름이 아니었던 밤
내 용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교에서 교내 시화전이 열렸다. 국어 선생님은 "짧은 시 한 편에도 여러분의 진심이 담길 수 있다"며 시화전 참가를 독려했다. 나는 평소 일기 쓰는 걸 좋아했지만, 시를 쓰는 건 처음이라 막막했다. 며칠을 끙끙대다가, 결국 인터넷에서 '중학생 감성 시 예시'를 검색했다. 그러다 어느 블로그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발견했다. 이름 모를 고등학생이 쓴, 짝사랑에 대한 짧고 담백한 시였다. 나는 그 시의 구조와 표현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단어 몇 개만 바꾸고 내 이름을 붙여 제출했다. 솔직히 그때는 별 죄책감이 없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고, 시화전이 무슨 대단한 대회도 아니고, 그냥 학교 행사인데 뭐 어때' 하는 마음이었다. 오히려 나는 그 시가 담긴 시화가 복도에 전시되었을 때 은근히 뿌듯했다. 친구들이 "너 시 잘 쓰네"라고 할 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다. 그런데 며칠 뒤, 국어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교무실로 부르셨다. 선생님은 내 시화를 앞에 놓고, 태블릿으로 어느 블로그 화면을 보여주셨다. 내가 참고했던 바로 그 블로그였다. "이거, 네가 낸 시랑 거의 똑같지 않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해 고개만 푹 숙였다. 선생님은 화를 내시는 대신, 조용히 물으셨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이 시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실 나는 그 시를 가져오면서 단 한 번도 그 시를 쓴 사람을 떠올려본 적이 없었다. 그저 '예쁜 문장'으로만 보였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그 블로그를 다시 찾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았다. 그리고 그 시 아래 달린 댓글들을 발견했다. "저도 딱 이런 마음이었어요. 위로가 됐어요." "이 시 덕분에 짝사랑이 아프지만 예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블로그 주인이 남긴 답글도 있었다. "이 시는 사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열일곱 살 겨울에 썼어요. 좋아하던 친구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가던 날,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울다가 집에 와서 썼거든요. 그 마음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네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에게는 그저 '예쁜 시 한 편'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열일곱 살의 어느 추운 겨울, 버스 정류장에서 흘렸던 눈물 그 자체였다. 나는 그 눈물과 그리움을 몇 분 만에 복사해서, 마치 내 것인 양 학교 복도에 걸어놓았던 것이다.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국어 시간에 처음으로 자작 수필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를 담은 글이었다. 며칠을 울면서 쓴 글이었다. 발표 후 반 친구 중 한 명이 "이 글 좋다, 나도 다음에 비슷하게 써야지"라며 웃었을 때, 나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 할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이 누군가에게 그저 '참고할 만한 좋은 소재'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였다. 그때 느꼈던 그 서운함이, 지금 내가 그 블로그 주인에게 안겨준 감정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다음 날 국어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그 시를 그대로 베낀 것이 부끄럽고, 그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화전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걸 배웠구나. 시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야. 마음을 베끼면,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함부로 가져오는 거란다."

나는 그 블로그에 조심스레 댓글을 남겼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시를 다른 곳에 제 이름으로 낸 적이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시에 담긴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라고 적었다. 며칠 뒤 짧은 답글이 달렸다. "괜찮아요. 그 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와닿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다음엔 그 마음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시화전은 이미 끝났고, 나는 결국 아무 상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날 이후 다시 시를 써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인터넷을 뒤지는 대신, 내 이야기를 떠올렸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강아지가 작년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던 밤, 그 밤에 느꼈던 먹먹함을 시로 읊었다. 서툴고 투박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나의 마음이었다.

담임 선생님께 그 시를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전 시보다 훨씬 못 다듬어졌지만, 이 시엔 네가 있어."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요즘도 나는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글이나 그림을 볼 때마다, 그 아래 작게 적힌 이름을 한 번 더 눈여겨본다. 그 이름 뒤에는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어떤 밤, 어떤 눈물, 어떤 그리움이 숨어 있을 것이다. 열여섯 살인 나는 아직 세상의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문장을 함부로 가져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을 담은 글을 쓰는 것보다 어쩌면 더 먼저 배워야 할 태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배려가, 우리 모두의 진심을 조금 더 오래 지켜준다는 것을.